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외국 불교대표단' 총무원 예방

연등회(연등축제)를 참관하기 위해 방한한 WFB 대표단과 중국 불교대표단 및 칼미크공화국 불교대표단은 5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방문하여 환담했다.

◇ WFB 대표단

세계불교도 우의회(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 공식 대표단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총무원장 스님은 "내년에 열리는 WFB 대회를 중앙신도회와 함께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머무는 3박4일 동안 연등축제를 통해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하며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란다."라고 밝혔고, 조계종 총무원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한 연등회(연등축제)에 WFB 대표단이 동참함으로써 한국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러 국가의 불교지도자가 함께 모여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모습을 통해 연등축제의 국제화와 인류구원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은 WFB 대표단에게 일본 지진·쓰나미 피해지원 긴급구호금 1만 달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와나메티 WFB 회장은 "세계불교도 우의회 총회 유치와 성금 전달 등 지부로서 많은 역할을 해 주 감사하다"며 "세계적인 불교지도자인 총무원장 스님을 태국에 공식 초청해 법석을 마련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대표단은 오는 2012년 WFB 대회 개최지인 여수를 방문해 사전 답사를 진행했고, 7일에는 연등행렬을 참관했다. 이날 예방에는 탐라리웨라 다마라타나 부회장을 비롯해 사무총장 및 집행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장견영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부국장과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명생스님 등 중국불교대표단 10여 명도 방문했다. 장견영 부국장은 "19년째인 한·중 양국 간의 우호증진



에 양국 불교계의 기여가 적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우호선린관계가 더욱 더 확대될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해 한중일불교교류대회에서 보여준 환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호관계가 더욱 더 확대되고 심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 칼미크공화국

러시아 연방 21개 공화국 가운데 하나인 칼미크공화국은 인구 30여 만명 가운데 약 80%의 국민이 불교를 신봉하는 유럽 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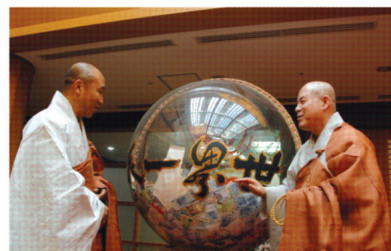
일의 불교국가다. 칼미크공화국 불교대표단장인 칼미크공화국 불교 최고 지도자인 텔로 툴쿠 린포체는 "한국과 칼미크는 언어와 문화가 다를 뿐만 아니라 거리상으로도 먼 나라이지만 부처님 제자라는 큰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총무원장 스님께서 칼미크를 방문해 주셔서 소련 해체 후 새롭게 불교를 일으키고 있는 칼미크 불교에 큰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공식 초청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면 칼미크를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조계종, 이웃나라 일본 돕기에 발 벗고 앞장 서

日 지진피해 성금 6억 '돌파'



'아름다운 동행' 소식지에 따르면 '일본에 자비의 손길을 보냅니다' 캠페인의 모금액이 4월 25일 기준으로 약 6억 3,200만원으로 집계 되었다. 전국 교구본·말사를 비롯하여 불자, 일반시민·단체 등이 대거 동참한 결과다. 서울 조계사가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한 세계일화 모금함에도 총 2731만9190원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국장 묘장스님은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피해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

므로 불자라면 기꺼이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며 "이번 계기에 우리의 진정성이 충분히 전해져 이웃나라인 일본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대표단, 일본에 생수와 기금 지원

조계종 대표단(단장 혜경스님)은 4월28일 센다이시에 위치한 조총련계 민족학교인 동북조선조중급학교를 찾아 구호기금 400만 엔(한화 약 6000만원)과 생수 2만



여 병을 전달했다. 2만 병 가운데 1만 병은 서울 진관사에서 후원했고, 전달식에는 사회부장 혜경스님, 홍민석 국제팀장, 학교 관계자 및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혜경스님은 이날 "처음 가는 길은 험하고 멀지만 한번 간 길은 쉽게 갈 수 있는 법"이라며 "민족공통의 정서로 인도적 차원의 구호사업이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자"고 강조했다.

동북조선조중급학교는 일본 센다이시 외곽에 위치한 조총련계 민족학교로, 지난 3월11일 규모 8.0 지진으로 현재 건물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이 학교는 일본 내 정식 인가 학교가 아닌 관계로 정부의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조총련 계열의 학교여서 한국 정부나 영사관 등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2면에 계속



개관 1주년 법회 행사 사진

불교영어도서관 '벨'

불교영어도서관(관장 정지원)은 여러 종류의 불교 서적을 열람할 수 있으며 불교영어강좌 등이 마련된 모든 불자들의 열린 공간이다. 송광사국제선원과 화계사국제선원 및 국제연등회관의 설립정신을 이어받고,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청아스님의 원력에 의하여 2007년 5월에 설립되었다.

한국으로 출가한 외국인 스님들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스님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인 불자들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널리 펼치도록 영어 불서와 열린 공간의 제공함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벨의 각종 불교영어프로그램은 외국인 스님들과 불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진행은 영어로 한다. 또한, 시설과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며, 모든 불자들은 진행되는 불교영어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벨의 프로그램 중 일부는 한글로 자막 처리하여 불교 TV에 방영됨으로서 모든 불자들에게 회향된다.

지금까지 도서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을 보면 아상가 교수님, 청안스님, 청고스님, 용수스님께서 불교영어강좌를 해주셨고, 무심스님, 링린포체스님, 아자린포체스님께서 영어법회를 해주셨다. 반야보가스님과 켄포 나왕룬드롭스님께서 참선을, 청고스님, 정오스님, 수완나스님, 여여스님, 로버트, 아미르님

께서 그룹스터디를, 어린이불교영어교실은 선여스님, 용수스님, 덕장스님, 라이언 브렌지님께서 지도하셨다. 이들 중 아상가교수님의 "The basic teaching of early Buddhism", 무심스님의 "육조단경", 청안스님의 "One Mind-One Chance", "We are the way", "Herding the ox"는 불교TV에 방영되었다.

국내 유일의 독립된 불교영어도서관인 벨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영어서적은 현재 약 2,000여 권으로 송광사·화계사·자광사 국제선원과 뜻있는 많은 불자님들께서 기증한 것이다. 경전, 학술지, 근본(소승), 대승, 금강승, 현대, 응용, 선불교, 한국불교 등으로 다양하며, 모든 불자들은 누구나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다.

벨은 불교영어프로그램이 없는 시간대에 관심 있는 불교단체와 신행회에 대하여 벨의 시설과 공간을 공부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함에 따라 벨이 점차 불교문화 공간으로 정착되고 있다. 불교에 관심이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불교를 영어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벨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벨은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의 보살 수행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행 깊은 불자님들의 무주상 보시(free donation)로 운영되고 있어서 뜻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해 본다.

불교영어도서관 운영시간 월 ~ 금요일 - 11:00 ~ 16:00 / 토 - 11:00 ~ 14:00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6-21 3층 전화번호 02-730-0173
홈페이지 및 메일 www.bels.kr / bels@bels.kr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KBIN),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불교문화한마당 동참

민들레 씨앗이 하늘을 날아올라 어딘가에 생명을 잉태시키려는 푸르른 5월 8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사 앞길에서는 '2011 불교문화한마당'의 축제가 시작되었다. 한국불교와 문화를 소개하는 '국제 불교한마당'은 족두리 연꽃등 만들기, 국제청소년불자네트워크, 한복문화체험, 템플스테이, 한국어로 이름 지어주기, 스리랑카불교, 티베트불교 등의 부스로 운영되었다.

KBIN에서는 '세계일화'라는 행사명으로 참여하여, 법고치기 체험 및 희망 메시지 띄우기 행사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졌다.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법고 체험은 자연스레 두들기는 북채에 맞춰 온 몸으로 느껴지는 전율에 따라 한바탕의 흥겨움을 발산하는 마당이였다.

법고 체험으로 얻은 마음 가득한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희망 메시지에는 가족의 행복 서원부터 굶주리고 있는 난민을 위한 축원 및 세계 평화 기원까지 다양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특히 외국인에게는 열기가 대단하여 체험하고자 하는 관람객들이 줄을 이었다.



(위)법고 체험을 지도하고 있는 KBIN 대표 정범스님 (아래)법고 체험에 이어 법음을 전하고자 희망 메시지 띄우기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끝을 맺었다. KBIN 02-733-8985

美 태권도 지도자 '힘찬 템플스테이'

미국태권도협회(ATA/American Taekwondo Association)의 최고 지도자 39명이 5월 8일과 9일 양일간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ATA의 선리 회장과 그랜드마스터 순호리 등 일행은 해인사에서 108배·참선·태권도 시연 등의 사찰문화 체험을 통해 불



교문화를 이해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들 일행을 맞은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은 "불교의 수행정신과 태권의 무도정신은 서로 상통한다."며 "충효사상이 근본인 태권도의 무궁한 발전을 통해, 세계인들의 행복과 인격도야가 이뤄지도록 축원한다."고 법문했다.

미국태권도협회는 고 이행웅 이터널 그랜드마스터가 지난 1969년 미국에서 설립했으며, 미국전역에 1,500여 개의 태권도장과 30여 만 명의 정식회원을 보유한 단체로, 태권도 무도정신을 전파하고 충과 효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사회정화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다. 사진제공_해인사

불광연구원, 한국불교 발전 방향 제시



스님) 주최로 4월 30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대만불교의 실천이념과 운영 시스템'을 주제로 학술연찬회가 열렸다.

1부는 대만불교의 실천이념, 2부는 사찰의 운영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을 통해서 대만불교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발전 방향에 대해 열린 논의를 펼쳤다.

오는 9월 16일에는 '대만불교의 인적구성 과 리더십의 원천'을 주제로 2차 학술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불광연구원은 불교를 현대 사회에 맞게 전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불교사회과학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광덕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전법 교화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불광사회지홍스님의 원력으로 세워졌다.

불광연구원 02-741-3537

▶ 1면에서 계속

日 주요 일간지, 긴급구호단 활동 보도

일본 동북부 지진으로 사상 초유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돕기 위해 급파된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단선발대의 활동이 일본 주요일간지에 실렸다.

사토 동양대학 강사의 '韓國佛敎界から積極的支援 曹溪宗は被災地入り'라는 제

목의 이 기고문은 지난 4월 5일자 중외일보(中外日報) 5면에 주요 기사로 보도됐다. 기고문은 긴급구호봉사단의 피해현장 답사 소식과 서울 조계사에서 모금활동을 벌였다는 내용도 실었다. 또 불교신문의 '일본 참사에 불교계 적극 참여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3월19일자 사설도 소개해 조계종이 일본을 돕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편집부

캄보디아 빈민 청소년들의 희망이 될 '로터스 희망미용센터' 개소

캄보디아 빈곤 청소년들에 미용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로터스 희망미용센터'가 지난 5월 6일 캄보디아 시엠티에서 개소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캄보디아 최초의 사회적 기업으로 진행되는 이 센터는 기존 빈민층 대상의 구호에서 더 나아가 미용 직업훈련이라는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고 근본적인 빈곤으로부터 탈피하자는 취지로 세워졌다.

6일 개소식에 참석한 국제로터리클럽 3640지구 김철중 총재는 "나쁜 길로 빠지기 위한 캄보디아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 공감을 이번 센터 건립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지금은 시작이지만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교육지원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용학원 개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1억원으로 국제로터리 3640지구와 함께 일하는 재단, 로터스월드에서 공동으로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빈민지역 청소년들과 고아원생들을 대상으로 원생들을 모집하였고 1차 대상청소년 20여명이 선발되었다. 미용센터는 6개월 교육과정(24주, 주5회)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교육과목은 헤어·메



이크업·네일아트 등의 우수한 한국의 미용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4월부터 파견되어 미용 교육 및 센터 개소를 준비해온 한국인 미용사 안재훈씨는 "교육을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많겠지만 아동들이 사회진출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수한 아동들에게 한국으로 미용 유학 및 미용실 창업의 기회도 제공한다면 현지 청소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교

육의 열의를 밝혔다.

5월 6일의 개소식은 SBS '모닝와이드'를 통해 방영되었으며, 현지 주의회 및 교민, 국제로터리 3640지구, 함께 일하는 재단, 로터스월드 아동센터 등 관계자들과 현지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지부는 미용센터의 운영을 전담하고 있으며, 기존의 1:1 아



동결연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교육대상아동들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로터스월드는 '로터스 희망미용센터'를 시작으로 제3세계 빈곤아동의 보육과 교육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의 교육과정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로터스월드 운영기획팀장 박영신 02-725-4277

'더프라이스' 국제개발협력 주민운동 교육 진행 新 패러다임, 현지 주민 자립에 초점 맞춰야

국제개발구호 NGO 더프라이스는 국제구호활동의 새로운 방향으로 현지 주민들의 자립을 위한 방안 모색과 더불어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주민운동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프라이스는 지난 4월 2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국제개발아카데미와 파트너십을 맺고, 더프라이스 서울 본부 카페에서 국제개발협력 주민운동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의 취지는 주민운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첫째, 국제개발협력 현장의 주민 조직가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한다. 둘째, 주민 중심의 마을 만들기 위한 올바른 개념과 과정을 안다. 셋째,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주민운동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있다. 교육 내용은 주민 운동 총론, 주민 조직가, 주민 관계, 지역 조사, 조직화 전략 및 프로그램 등

을 포함한 11개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이론과 현장학습을 병행해 진행한다.

교육은 한국 주민운동 정보교육원(코넷) 트레이너 강인남씨가 맡았으며, 국제개발협력 분야 실무자, 현장 경험자 15명이 교육생으로 참가한다. 최근 원조 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원칙이 현지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쪽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한 대한불교조계종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국제개발협력분야 교육의 새로운 모델 제시와 그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을 맡은 더프라이스 국제사업 1팀의 유보미 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 현지 주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며 교육과정을 통해 실용적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를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을 진행해 본 결과 매우 집중도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실무자들이 활동하면서 느낀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최빈국의 도움을 받는 일에 익숙한 이들이 스스로 움직여 날개를 펼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더프라이스는 앞으로도 깊은 고민과 진취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국제개발구호사업의 질적 성장을 꾀할 수 있는 이번 진일보한 행보에 국제개발구호에 동참하는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기를 바란다.

더프라이스 행복나눔팀 양혜운 팀장 02-735-3119



국제사업1팀 유보미 팀장과 미얀마 주민들의 어울림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국제구호단체 '참좋은인연 BUD' 설립

한국불교대관음사는 작년 8월 사단법인 '참좋은인연 BUD' 설립 절차를 마치고, 국내외를 무대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은 "국내의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대민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밝고 희망찬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설립배경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외 교육지원 사업을 비롯해 위생환경 개선사업, 결연 및 후원사업, 문화체험 기회제공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제구호사업에 대한 시작은 작년 10월

27일 네팔 포카라 라쪽마을 '참좋은인연 BUD 어린이 보육센터' 기공식이었다. 라쪽마을은 형편이 어려워 혜택을 받기 힘든 수드라 계급에 속하는 천민들이 80% 이상 밀집해 있는 곳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기본교육 뿐 아니라 영아 사망률이 높은 현지 사정을 고려해 체계적인 위생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어린이 보육센터는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올 가을에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며, 개관식 후에는 2차 건립 부지를 선정하여 또 다른 어린이 보육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코피

노(한국어아버지, 필리핀어머니) 아이들을 위한 국제구호사업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사)참좋은인연 BUD 임형욱 사무국장 053-471-8229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네팔 포카라 라쪽마을에서 '참좋은인연 BUD 어린이 보육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인터뷰 - 뉴욕사원연합회장 & 뉴욕 불광선원 주지 휘광스님 세계를 주도하고자 도미, 뉴욕에서 입지 굳혀

뉴욕은 해외로 가는 한국불교의 돌파구이다. 그러므로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척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국에서도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다. 바로 그 치열한 현장의 선봉에 휘광스님이 있다. 한국불교 세계화의 아전사령관으로...

미국에 진출하신 동기는?
39세가 되던 1991년 변화하는 세계를 배우고 체험하며, 나아가 그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고 미국에 왔다. 이 사회를 보다 잘 알기 위해 학교 공부를 하고 싶었다.

막상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느낀 점은?
컬럼비아 대학 어학원에 등록하여 1년간 영어공부를 했다. 그런데 금방 돈이 다 떨어졌다. 한국에서 온 스님들에게는 미국생활이란 것이 건디기 힘든 풍토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 후 학교를 접고 몇몇 신도분들의 청원으로 불광선원을 창립하였다.

불광선원을 운영하시며 역점을 두었던 사항은?
척박한 여건 속에서 무엇보다도 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인간힘을 썼다. 이곳은 한국보다 적어도 두 배 이상 노력해야 포교도량으로서 유지가 가능한 곳이다. 그런 와중에도 미국에 유학 오신 스님들이 신분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겪지 않고 편안하게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

력을 기울였다. 올해로 12년째 지속되고 있는 불광 장학재단도 그런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다.

그간 사찰을 운영하시며 얻은 성과를 꼽는다면?
2009년, 7년에 걸친 노력으로 최신식 법당을 건립하여 미동부에 내세울 만한 포교도량으로서 입지를 세웠고, 어린이 법회를 비롯하여 중고등부, 청년회 그리고 일반부가 각각 법회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법회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요일에 온 가족이 짚어 와서 뜻깊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운영의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회장으로 계시는 뉴욕사원연합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뉴욕사원연합회는 1998년도 뉴욕 일원의 주지스님들과 발족하였다. 지역의 한국사찰들이 구심점 없이 각자의 사찰 운영에 급급한 상황이었는 데, 힘을 합하여 한국과 뉴욕 간의 연결고리가 되고자 하는 근본취지였다. 지금도 그 정신은 유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정신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 동안 한국에서 큰스님을 모셔와 법회를 할 경우 뉴욕사원연합회가 주관하여 여법하게 행사를 치른 적이 많이 있다. 올해는 종단에서 해외특별교구 법안이 종회에서 통과되어 본격적인 교구설립에 앞서 임시로 뉴욕특별교구를 설치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들었다. 말하자면 뉴욕사원연합회가 해외교구청 설립의 롤모델로 선정된 것이다. 종단의 해외교구청 설립을 위한 노력은 뉴욕을 기점으로 확산될 것이다. 현재는 종단으로부터 뉴욕특별교구의 설립에 필요한 조직구성안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따

른 내부토론을 진행 중이다.

개인적 서원이나 계획이 있다면?

2012년 9월 30일이면 지금 우리 절에서 진행 중인 777일 기도를 회향하는 날이다. 기도가 끝나면 한국에서 외국인 스님들이 중심이 되어 영어법문을 위주로 하는 사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타종교계에서는 이미 이러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도 우리의 장점과 자원을 살려 불교중흥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뉴욕 불광선원 +1-845-359-5151
www.bulkwang.us
대담 및 정리 이종권(편집위원)

미주한국불교 총람 및 불교인 업소록 나온다

워싱턴 보림사 주지 경암스님은 2011년 조계종 해외포교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채택된 “미주한국불교 총람 및 불교인 업소록”의 발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이 책의 제작 실무자로 국제포교사 이종권씨를 위촉하였다.

미주한국불교 총람 및 불교인 업소록은 2009년 발행되었던 조계종 해외사찰 총람을 보강하고, 미주 전역의 불교계를 하나로 묶어 불교인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교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획되었다.

미주한국불교 사상 최초의 불교총람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이 책은 미주 전역에 산재한 사찰 및 불교단체 그리고 불교인 사업자들에게 관한 모든 정보를 한 권에 수록하게 된다.



보림사 주지 경암스님은 이번 불사가 미주 한국불교계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중대한 작업이라고 전제하며, 책이 완성되면 미주에 거주하는 모든 불자들에게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의 편집을 맡은 이종권씨는 조계종 국제포교사로서 2009년도 조계종 해외사찰 현황조사 프로젝트의 현지조사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이번 조사는 “현지 불교계가 유용성이 많은 만큼 기본정보도 수시로 변화하는 일이 많다. 이 책은 그러한 변화를 수시로 반영하는 동시에 이민생활을 해나가는 불자들이 이 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책을 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올 연말에 출간될 예정으로 작업 중인 이 책은 사찰 및 불교단체 그리고 불교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정보 등에 관한 광고를 중심으로 편집될 것이지만 한국식 불교달력과 미국달력이 함께 편집된 달력과 한국 불교계의 주요 웹사이트 및 템플스테이 광고 등 해외불자들도 꼭 알아야 할 기본 불교정보도 담아 1만부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워싱턴 보림사 +1-703-352-0380

뉴욕 국제봉축 법요식 및 제등행렬

제 23회 국제봉축법요식 및 제등행렬 행사가 뉴욕 맨해튼에서 열렸다. 유니언 스퀘어 파크에서 열린 이 행사는 일본 지진과 쓰나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식으로 시작, 봉축법요식 및 축하공연을 갖진 후 32가 매디슨 스퀘어 파크까지 제등행렬을 가졌다. 1989년 처음 시작한 맨해튼 봉축행사에는 주최측인 재미 한국불교계를 비롯하여 미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중국, 태국, 티베트 그리고 스리랑카 불교계의 사부대중들이 참석하여 장관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

에서는 관육식과 차궁양, 108배, 참선, 탑돌이 등과 봉축한마당 문화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LA 연합 봉축법회

남가주 불교 사원연합회와 대한불교조계종 LA 지역 포교사단은 5월 1일 LA 한인타운 중심에 자리 잡은 드림웨딩 벵킷 홀(Dream Wedding & Banquet Hall)에서 불기 2555년 연합 봉축법회를 봉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예년과 달리 웨딩홀에서 열렸는데 280명 규모의 홀을 가득 메워 성대하게 치러졌다. 강덕림 LA 지역 포교사 단장은 “예년에 비해 여러 사찰들이 참석했다”고 전제한 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장서 싱 행

사장에 입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미안한 마음을 표시했다.



청호, 대성스님, 미국 사립명문고에서 불교 강연

뉴욕 대관음사 주지 청호스님과 뉴욕 불광선원 선원장 대성스님은 5월 20일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머서스버그 아카데미(Mercersberg Academy)에서 불교를 주제로 두 시간에 걸쳐 합동강연을 하였다. 이날 강연은 이 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미국인 매튜 카레티씨의 초청으로 성사되었다. 카레티씨는 한국에서 진제스님, 도영스님, 우학스님 등 여러 스님들로부터 불교를 지도 받고 오랫동안 수행하다가 귀국하여 이 학교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는데, 귀국한 후로도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인연 지었던 스승들과 교류하며 강단에서도 불교를 전법하고 있다.

이 학교의 정규 수업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는 불교학 시간에 초청강연 형식으로 진

행되었는데, 청호스님은 “나에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출가의 계기와 과정에 대해 강연하였고, 대성스님은 참선의 의미와 방법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 강연을 주선하였던 카레티씨는 “지난 3월 청호스님이 강연을 해주셨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다시 초청하게 되었다. 내년에도 꼭 다시 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머서스버그 아카데미는 1893년 설립된 기숙학교로서 최고의 명문대 진학률을 자랑하는 사학명문이다. 이날 강연에서 청호스님과 대성스님은 항상 현재에 충실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설파하였고, 학생들은 박수로서 감사를 표하였다.

뉴욕 대관음사 +1-718-791-7128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고려사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고려사(주지 불원스님)는 불자들의 안식처와 같은 곳이다. 여느 교민 사회이든 생계의 수단으로 개종을 하며, 대부분 성당과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도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많은 유혹도 이겨낸 분들이다. 대부분의 교민은 의류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직 종사자도 있다. 한국처럼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력을 많이 따지지 않는 편이다.

토요일 참선법회는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지금까지 맥을 유지하고 있다. 주로 현지인 대상이며, 교민 2-3명 현지인 3명~4명이 고정적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변동이 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참선, 6시 예불, 예불 후 차담 시간을 가진다. 통역으로 이야기 하다 보니 대화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

일요일법회는 20명 내외의 인원이 참석하며, 거의 교민 위주이다. 년 중 행사는 초파일·백중 기도, 올해로 5회째인 칠월칠석 경로잔치, 설날·추석 제사가 있다.

앞서 상주하셨던 스님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지기를 반복했다. 해외포교는 혼자서 감당하기는 힘든 것 같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누군가와 같이 한다면 힘도 반으로 줄어들 텐데 하는 생각도 해본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여러 가지 벽에 부딪치지만 오늘도 희망을 갖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처님과 뜻이 같다면 부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믿으며,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글_고려사 주지 불원스님



Av. Carabobo 1057. Cap. Fed. Bs. As. Argentina Ko Ryo Sa 아르헨티나 고려사 +54-11-4632-1800

뉴욕 청아사, 전통관례와 사찰음식 시연회 성황



성년식

뉴욕 청아사는 5월 30일 뉴욕의 한인타운 플러싱 금강산에서 청소년 불자를 위해 전통방식에 따른 성인식과 이를 경축하는 사찰음식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청아사 부설 선재한글학교의 제 1회 졸업생 배출을 축하하기 위하여 기획된 이 행사에서는 한국전통 고유 성인식을 재연하고, 행사에 참여한 하객들과 함께 발우공양을 통하여 불교전통의 사찰음식을 나누었다.

“관례”라고 불리는 전통식 성인식은 “땀기를 올리거나 상투를 틀고 관을 씌워주며, 성인의 자격을 인증하고 책무를 일깨우기 위해 시행되었던 미풍양속이었는데,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잃어버렸던 것을 복원하여 재연해 보았다”고 주지 측은 설명했다.

관례는 어른의 복식을 갈아입히는 삼가례, 성인에 이르렀음을 축하하는 술이나 차를 내려주는 초례 그리고 어른이 된 자의 이름을 아껴 사용하라는 취지로 자(字)를 내리는 가자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날 관례에서는 청아사 부설 선재한글학교의 첫 졸업생 박주호군이 이백 명의 하객 앞에서 성인으

로서 앞날을 축원 받았다.

관례를 마친 후 장학금 및 졸업장 수여식을 가졌고, 다음으로 사찰음식 시연 행사가 이어졌다. 비불교인과 외국인들이 많이 참석했던 이날 행사에서 저녁공양을 겸한 사찰음식 시연은 발우공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손님의 테이블에 네 개 발우가 차려졌고 발우공양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다함께 오관계를 염송하고 사찰음식 시연으로 들어갔다.

청아사의 이날 행사는 2011년 해외포교를 위한 중단 지원 사업으로서, 조계종은 매년 불법홍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해외 포교프로그램을 선정,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뉴욕 청아사 +1-718-886-0385



오관계

[아비라기도 회향기]

번뇌와 망상을 잊기 위해 목청껏 진언을 외워

불교와 연을 맺은지 몇 년이 되었지만 아비라기도는 작년 이맘때 처음 들어본 기도였다. 자기기도와 참회는 자기 스스로 해야 함을 가르쳤던 성철 큰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금도 백련암 등의 절에서 일년에 4번 아비라기도를 봉행하고 있다고 한다.

주지스님께서 아비라기도에 따른 육신의 고통을 함께 일러 주셨는데 난 조금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아비라기도 만큼은 여러 도반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기운이 아니면 끝까지 할 수 없는 걸 알기에 망설일 수가 없었다.

입재 날, 동참한 모든 보살님들은 모두 비장한 각오로 자리를 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가 시작되었다. 108배 후 장쾌합장



을 한 채 “옴 아비라 흠 감 스바하” 비로자나 법신진언을 하는 동안, 떠나지 않는 망상과 번뇌를 잊기 위해 목청 높여 외워도 보지만, 30분이라는 시간이 상황에 따라 이렇게 길게도 느껴지는구나 싶었다.

스님의 죽비소리에 맞춰 들려야 하는 진

언 대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로 도반들의 고통 뿐만 아니라 내 무릎의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했다.

곧 이은 능엄신주는 입에 익지 않아 눈으로 따라 가기도 바빴던 작년과는 달리 1년 사이 꽤 익숙한 발음으로 아 이제 한 품의 힘든 고비가 끝났구나 싶은 맘에 우렁차게 스님의 목탁소리에 맞춰 독송하게 되었고, 회향기에 이은 발원문에서는 내용 구절구절이 나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고 참회함으로 원지 모를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환희의 눈물이 흐르기도 했다.

이렇게 24품을 하는 동안 점점 잡념이 줄어들면서 내가 외우는 진언을 내가 듣게

되었고, 고통도 점점 편안해지는 걸 느끼면서 좀 더 부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구나 하는 착각이 감히 들기도 했다.

언제부터인가 부처님의 가피를 항상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늘 끊임없는 감사기도로 정진하려고 노력한다.

보약과 같은 한번의 시련 후 항상 만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에게 이번 아비라기도는 또 다른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악업이 조금이나마 소멸되기를 바라며 이번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보살님들 기도성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스런 음식으로 점심공양과 간식을 챙겨주시며 또 다른 수행모습을 보여주시는 명성행보살님, 감로행보살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한명 한명의 보살님들을 챙기시면서 끝까지 기도를 잘 이끌어주시는 진수스님 항상 고맙습니다.

글_중국 불광선원 신도 선혜지 합장

수행자의 뇌를 스캔하다

-BBC 뉴스 [2011.4.28]

미국, 뉴욕 - 뉴욕대학의 부교수이자 과학 연구원인 조란 조서포빅 박사는 20여 명의 티베트 스님들의 뇌를 스캐너로 검사하여, 참선하는 동안 스님들의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머릿속 혈류를 추적하여 수행인이 합일 의식(대상과 하나가 됨)에 어떻게 다다를 수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함이다. 참선으로 단련된 주의력은 삶을 더욱 청안하고 행복하게 한다고 조서포빅 박사는 말했다.

참선 연구는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뇌의 변화능력과 그동안 몰랐던 최고의 방식으로의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뇌는 운동 등 외적 활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 외부 네트워크와 자신과 감정에 대해 반조할 때 활성화되는 내부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조서포빅 박사는 이 두 네트워크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을 때 대상과의 합일에서 오는 조화로운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는다. 두 네트워크가 조화롭게 구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몽상과 같은 망상에 휩싸이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쉽게 몰입할 수 있다.

달라이 라마, 순수한 정신적 지도자로 남겠다

- PTI [2011.4.30]



일본, 도쿄 - 달라이 라마가 3월 11일의 일본 지진과 쓰나미 희생자를 위한 기도 법회에서, 새로 선출된 티베트 망명정부의 총리인 립삼 상가이에게 정치권력을 이양한 후 본인은 "순수한 정신적 지도자"로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의 교도통신은 달라이 라마는 "그 것(권력)이 달라이 라마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나는 달라이 라마제도가 정신적 지도자가 이끄는

정신적인 영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달라이 라마의 언급은 하버드대 법학자 출신의 립삼 상가이가 총리로 선출된 후 이를 만에 나왔다.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의 다수가 나의 결정이 시기적절했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으며, 중국이 티베트 자치 지구에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탄압을 자행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의식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알츠하이머와 자폐증 등의 신경정신병의 원인해결에도 일조하고 있다.

조서포빅 박사는 이 신비로운 두 네트워크의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자들을 스캔했고, 앞으로도 계속 청안함과 합일의식의 신경학적 의미를 설명하는 연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불교협회, 부처님 성도 2600년 기념 스리랑카 방문

- 불교재선, www.fjnet.com [2011.05.27]

스리랑카 -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절강성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장광천 단장을 중심으로 한 "중국불교 교향악단" 43명의 대표단은 부처님 성도 2600년을 기념하는 축하공연을 위해 스리랑카를 방문하였다. 이 기간은 스리랑카의 웨사데이(부처님 오신 날)이며, 부처님 성도 2600년 기념축하를 위한 다채로운 문화공연 행사가 기획되었다.

18일에는 반다라나카 문화센터에서 국제불교영화제를 개최하였는데, 중국 대표단은 개막식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여 참석한 대중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20일에는 스리랑카 불치사에서 개최된 국

제불교 박물관 건립식에도 참석하였다.

중국 대표단은 양국간 우호 교류차원에서 '스리랑카·중국 우호협회' 측에 1만 불을 전달하였으며, 스리랑카 사찰소속의 학교에 기자재 및 학습품 구입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증엄스님, '타임즈' 올해의 인물에 오르다

- www.chinapost.com.tw [2011.4.28]

대만 - 대만 자제공덕회의 증엄스님은 타임즈가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자, 스님은 상을 받기 위해 뉴욕에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대만의 후와리엔에 본부를 둔 초지재단을 이끌고 있으며, 전 세계에 50여 개의 지부를 두고 자연재해 희생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때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구호임무를 수행하였다. 장기적으로는 학교, 병원과 집을 지어주고 있으며, 수많은 지구인들이 증엄스님의 자비를 목격하고 있다. 그러나 스님은 타임즈의 100인에 선정된 것은 모두 지지자들과 자원봉사자의 공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타임즈는 스님이 현생에 이미 성인이라고 존경을 표했다.

2008년 8월 8일 마라콧에 태풍이 와서 홍수와 산사태가 났을 때도 초지의 자원봉사자들은 곧바로 현장에 나타나 음식과 의약품, 담요와 옷을 나누어주었다. 또한, 일본에 강도 9의 지진이 와서 쓰나미가 덮쳤을 때 수백 명이나 파견되어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신속하게 구호의 손길을 펼쳤다.

제2회 아시아 불교영화제 열다

- cinema online [2011. 5]

싱가폴 - 제2회 아시아 불교영화제가 2011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렸는데, 대부분의 티켓이 일찌감치 팔려나갔다. 공식 웹사이트에서 조직위원은 영화제가 2007년의 성공적 데뷔 이후 두 번째이며, 올해의 최신 영화는 다양한 내용을 선보이고 있어서 아시아 사회와 삶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또한 싱가포르의 웨사데이 축제 2주 전부터 불교의 다양함을 표현하는 많은 이벤트가 있었는데, 영화 관람 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으로 불교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의 하나였다.

싱가폴은 세명 중 한 사람이 불자이지만 영화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열리는데, 평화와 화합을 선양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귀분완 장관이 개막 행사 주빈으로 참석했으며, 알렉스 로카이온 감독이 함께 하여 자신의 수상작이며 1969년 홍콩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성인 영화 '무지개의 메아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올해 영화제에는 부탄, 중국, 홍콩, 일본, 스리랑카와 미국이 참여했고, 수익금은 자선단체에 보내진다.

벤디고에 자비의 대탑 건립

- The Hindu [2011.4.18]

호주 - 1851년 빅토리아 금 채굴지에 불자였던 중국인들이 들어온 이후 불교는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2%인 40만여 명이 불자다. 낡은 집에 한 명의 상주 스님으로 시작한 대승불교, 테라바다, 밀교의 세 전통의 불교가 지금은 모두 성장하여 선원과 절을 지었고 불자들 모임도 만들어져 등록된 불교단체가 570개이다.

이중 티베트의 라마 조파스님이 이끄는

FPMT(대승전통보존재단)가 독보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1974년에 티베트 불교가 호주에 들어왔고, 그 다음 해에 FPMT의 첫 센터가 건립되었다.

FPMT는 현재 호주에 25개의 센터가 있고 미국에는 더 많은 센터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07년 달라이 라마가 기반을 조성한 벤디고의 탑이다. 50평방미터의 땅에 48미터에 달하는 FPMT의 자비의 대탑은 1474년에 세워진 티베트 서쪽의 gyanse대탑을 닮았다. 벤디고 대탑 주위로 절과 선원, 요양소와 방문객을 위한 요사채가 들어선다. 이런 변화에 힘입어 벤디고에도 관광객이 수천 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조계종은 정법사, 금강사 등 몇 개의 사찰이 열심히 포교 활동을 펼치며 현지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대만 부통령 관불식에 동참

중화민국(대만) - 인도, 중국대륙,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 멕시코, 홍콩, 마카오 등 여러 나라에서 온 10만 명이 5월 8일 중화민국(대만) 대통령궁 앞 카이다 거란 대도(凱達格蘭大道)에서 봉행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봉축 행사는 '건국 100주년 국정 부처님 오신날 및 어머니의 날 대회'라고 하여 대만 행정원(行政院, 내각에 해당됨) 문화건설위원회의 지도 아래 대만불광산사와 불광회 중화총회에서 주관하였다. 행사 슬로건은 '천 명의 스님과 만 명의 대중들이 함께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한 마음, 열 가지 원(願)으로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한다.'이다. 이날 법요식에서는 대만불광산사 창건주인 성운(聖雲) 큰스님께서 법문을 통

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나투신 의미를 설명하셨고 '관불'의 참된 의미는 "부처님의 성스러운 공덕으로 마음속의 욕심,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애고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화민국 부통령 소만장(蕭萬長)에 따르면 "부처님 오신날과 어머니의 날 행사를 함께 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이것은 증생을 제도하겠다는 부처님의 자비와 큰 원력을 기리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100명의 '모범 어머니'와 100세 이상의 어머니들이 동참하였고, 대만 각 정부기관장, 국제연합(유엔) 대표, 중국대륙 불교계 대표 및 각국 외교관들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글: 의은스님(서울 불광산사 주지)



라마 조파스님(가운데)

집중조명 **틴틴박사, 창조적 감성으로 전법하다**

미얀마 태생으로 우 에린다사라와 우 아타다 샤아도 아래서 수행한 후 태국에서 수행지도를 했었고, 현재 미국에서 새타운2라는 참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978년에 저술한 『살아있는 참선, 살아있는 관조 - Living meditation and living insight』는 전세계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엄격한 승단 위주의 불교국가인 미얀마의 전통에서 자란 여성 재가수행자로서 불교센터를 세우고 전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서양에 테라바다불교를 전하고 재가 중심의 수행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원력이었던 나는 9년 전 캘리포니아에 센터를 세워 위빠사나를 일상생활에 접목해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불교가 다른 전통과 수행법으로 변형되고 섞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비전통적인 재가자를 위한 테라바다센터를 열어 전법의 길을 개척해 가리라 결심했다. 유구한 전통의 불교 가르침의 본래의 뜻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생소한 서구 문화의 현재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에게 큰 도전이었다. 그러나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창조적 감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존

재의 심연과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인간 표현 방식의 공통분모를 찾아 나섰다. 나는 선 센터와 지역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성장하도록 실험했다. 그런 과정에서 불교의 지혜와 자비에 미국인의 자주적이고 탐구적인 불굴의 정신을 융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다. 또 미국인들은 권위 의식에 대해 강박적으로 경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애초에 수평적 조직을 만들었다. 지도자의 역할을 하되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구축한 것이 성공적이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춘 권위는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상생적 관계 맺음을 가능케 했다.

나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좌선 위주의 테라바다 센터와는 달리 위빠사나와 팔정도론 일상의 삶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다. 후에 번뇌로 가득한 고정관념을 이해하고, 정념 수행을 돕기 위해 아비달마의 핵심적 내용을 도입

했다. 팔정도과 아비달마의 통합은 미국인 수행자가 위빠사나를 일상생활에 응용하고, 결국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2년에 걸친 고급 과정의 교리와 수행 코스를 개발했다. 이는 테라바다 원전에 대한 존경심뿐만 아니라 수행을 깊게 하는데 매우 중요했다.

또한 '팔정도에 근거해 갈등을 조화로 바꾸기'라는 갈등해소 프로그램도 고안했다. 9년 동안 미국에서 공동체 만들기의 경험을 통해 영적인 공동체와 가정생활에서 팔정도 수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절제되지 못한 마음과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센터를 세운지 3년 째 되던 해에 '바른 말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5년 째 되던 해에는 갈등해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수행자의 발전을 깊게 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적 성장을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현대 교육학을 수용해서 교육과정을 개

발했고 몬테소리학교나 대체 교육시스템을 응용한 체험교육을 했다. 다소 추상적인 교리를 설명할 때 현대 과학기술을 사용했으며, 먼 곳이나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했다. 테라바다 불교가 서양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서양인 지도자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해서 몇 명의 미국 재가자를 교육시키고 있다. 이들은 현재 불법을 가르치고 있고 점점 많아지고 있는 수행자들의 역할 모델이기도 하다.

지난 2년 동안에 나는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의 교육과정을 더욱더 세밀하게 만들어 다른 센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 현재 새타운센터에서는 미국인 제자들이 참여하여 만든 연극을 심도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영상으로 제작한 DVD '부처님의 탄생'을 배포하고 있다.

www.saetawin.org

자비선으로 마음보배 찾기

- 노아 러반, www.huffingtonpost.com [2011.4.27]

처음 자비와 용서에 대한 불교 가르침을 들었을 때, 나는 굉장히 회의적이었다. 마약과 폭력이 난무한 환경에서 자란 나에게 자비는 나약함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였고, 고통이나 학대로 쉽게 상처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참선을 하게 된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정념수행과 다시 사랑해도 괜찮다고 확신을 준 부처님과 스승님께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봤을 때 보이는 것이라고는 공포, 화, 미움, 비판, 더 큰 공포, 강한 욕망들뿐이었다. 가만히 앉아 호흡에 주의를 기울일 때 마음은 계부의 머리를 때리거나 욕욕의 망상에 빠지곤 했다. 자비선을 시작했을 때도 마음은 저항으로 비판적이었고, 유연해지기보다 시끄럽고 경직되었다. 어렸을 때 고통을 회피하려 물어두었던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수행을 계속했다. 참선의 효과가 날 때쯤 부처님의 다른 가르침도 실천해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 게다가 더 잃을 것이 뭐가 있던 말인가? 난 이미 행복하지 않다. 내 마음은 벌써 경직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움과 욕망의 바로 아래에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참선을 통해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았다. 결국 자비와 용서를 매일의

수행일과에 넣기로 했다. 나 자신과 남을 사랑하도록 배우는 것은 더디고도 어려운 과정이다.

드디어 난 부처님과 스승님들이 말하려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친절함, 연민, 용서의 순간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음을 인정한다. 여러 해의 수행으로 내 마음은 조금씩 유연해졌고, 생각도 찾아들었다. 요즘은 사람의 머리를 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계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연민심을 갖게 된다. 하는 일에 쉽게 집착이 되고 때로 모든 존재에 따뜻함과 친절함을 느낀다. 나는 이제 안다. 자비심이 내 마음 본래의 성품이고 항상 드러나기를 기다리며 내 안에 잠재해 있음을...

참선은 가변적이다.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기도 해야 하고, 부드럽고 세밀한 어떤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때론 평생의 시간이 걸리기도 힘을 안다. 의지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곧 자비심이라는 잃어버린 보배를 찾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 약속된 것이라곤 단지 기다리고 있으며, 드러나기를 애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내심을 갖고 수행의 길을 바르게 한발 한발 따라가면, 언젠가 반드시 잃어버린 사랑과 자비를 발견할 것이다.



'유엔 웨삭의 날' 행사 참가기

이치란 (조계종국제교류위원, 유엔웨삭데이 IOC위원)



지금 세계불교의 흐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추진력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 태국이다. 이번 태국에서 열린 제8차 '유엔 웨삭의 날(UNDV)' 행사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외국에서 2천명 태국국내에서 3천명 등 5천여 명이 운집해서 3일 동안 마하출라롱콘불교대학교(MCU) 왕 노이 캠퍼스,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국제회의장과 붓다 몬톤 대공원에서 알차게 열렸다. 첫날은 개막식을 비롯해서 불교의 전통적인 법회형식으로, 둘째 날은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불교적 실천덕목이란 대 주제로 4개 분과 별로 소주제를 놓고 토론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셋째 날은 유엔국제회의장에서 전 지구촌을 향해서 불교적 대안의 메시지와 방콕선언서를 발표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붓다 몬톤에서는 평화의 촛불을 켜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유엔 웨삭의 날'이란 석가모니 부

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의 날인 음력 4월 보름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2004년 34개국이 발의하여 유엔총회에서 결의하여 이 날을 전 세계의 불교도들이 기리도록 한 것을 말한다.

해가 갈수록 참가국이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85개국의 불교지도자 2천 명이 참가했다. 지도급 승려와 재가지도자 학자와 총무원장급은 물론 중정스님들까지 참가한 비중 있는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불교라는 종교가 어떤 정신적 메시지를 갖고 사회각성을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인류 구원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장이기도 하다. 여러 나라의 불교학자들이 60여 편의 논문을 기고하여 두툼한 논문집을 냈으며 20여 명이 4개 분과별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에서는 제4분과에서 진행 동국대 교수가 '태고보우의 생애와 사상'을, 이치란 위원이 '설악 무산 조오현의 심우도에 나타난 선사상'을 각각 발표했다.

이제 한국불교계도 이런 웨삭의 날 행사에 한국불교계의 비중 있는 승가가 적극 참가해서 한국불교문화의 진수를 알리는 역할과 세계의 불교지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교류하여 불교발전과 인류평화건설에 동참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사망 이주노동자 추도법회 추진위원회

사망 이주민 유가족, 이주민 지원을 위해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금 전달

지난 5월 14일,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故아프사라만의 유족(아내와 동생)이 총무원을 방문해 이주노동자를 위해 써달라며, 사회부장 해경스님과 아름다운동행 박찬정 사무국장 그리고 추도법회 추진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동행에 기금을 전달하였다.

이날 기금 전달식을 위해 기존의 일정을 취소하고 참석한 해경스님은 "평소에 이주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고인의 안타까운 소식이 가슴 아프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 이주민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불교단체들로부터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았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 기금이 한국에 있는 많은 이주민들을 위하여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는 "유족이 고마움의 뜻으로 기금을 추진위에서 써줄 것을 제안하였고, 회의 결과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 기금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 할 것을 다시 제안하였고, 이를 유족이 받아들였다"고 전달 배경을 설명하였다.

'아름다운 동행'은 유족 및 추진위와 논의를 거쳐 이 기부금을 한국에 있는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민들을 위한 방글라데시 법당 보타사에 지원할 계획이다.故아프사라만씨는 지난 3월 17일, 경기도 연천에서 화재사고로 사망하였다. 사건



좌로부터 불교생활의례문화원 김규범 이사장, 네팔법당 용수사 우르겐스님, 화계사 사회국장 선현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해경스님, 아프사라만 유족(아내, 동생), 보타사 신도회장 정지성씨

이 발생하자 방글라데시 법당인 보타사와 김포마하이주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위가 구성되었고, 4월 3일에는 유족

과 지인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도법회도 열었다.

사망 이주노동자 추도법회 추진위원회 02-720-7095

오산 행복한 이주민 센터 - '부처님 오신날' 다문화가정 자녀 동자승 체험 참여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조계사에서 주관하는 동자승 단기 출가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정 자녀가 참여하여 화제가 되었다. 12명의 동자승 가운데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3명의 자녀(중국:김태성, 최동주, 베트남:황이산)가 동참하였다.



동자승 체험에 참여한 3명의 아이들은 18박 19일이라는 행사 기간 동안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생활 속에서 체득할 수 있었고, 한국의 전통 문화와 불교문화를 모두 체험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오랜 동안 떨어져 지내며 자식의 소중한 사회의 관심을 새삼스레 느꼈다는 손옥화씨(중국)는 "평소 교회에서도 다문화 프로그램이 있어 많이 참석하고 종교로 받아들였었는데 이번 동자승 체험 행사를 통해 불교문화를 체험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오산 행복한 이주민센터를 통해 한달 전 고국도 방문하는 기회까지 얻게 되어 고마움을 느꼈다. 이제는 이민자가 아니라 지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마련된다면 다른 이민자 가족들에게도 적극 추천하여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소감을 대신했다.

일정을 마치고 센터에 돌아온 참가 가족들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누구에게나 있다며, 모두에게 너무 감사하는 마음뿐이라고 전하였다.

오산 행복한 이주민센터 031-402-8300

김포 마하 이주민지원센터- '2011 김포 세계인 큰잔치'서 표창 받는 장지성씨

지난 5월 22일, 김포시 김포중앙공원에서 개최된 '2011 김포 세계인 큰잔치'에서 방글라데시 법당 보타사 신도회 회장인 장지성(방글라데시명: 라나바루와씨)가 김포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장지성씨는 한국으로 이주해 2000년부터 명지대학교 무역학과에 다니다가 중퇴하고 공장에서 일했다. 2003년 한국 국적을 취득 한 뒤, 김포로 옮겨 와 외국인 마트를 운영하며 10여 년 이상 국적이 상관없이 일 자리 안내·상담·통역·의료지원 등 어

려움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을 도왔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장지성씨의 공로가 인정되어 김포시장 표창을 받게 되었다. 장지성씨는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력과 봉사를 해달라는 뜻으로 알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를 계기로 장지성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자원 봉사 및 활동 등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5월 25일에는 KBS 라디오 생방송인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다.

김포 마하 이주민지원센터 031-8543-7605



오른쪽 두 번째, 장지성씨



나는 한국인이다 출연 당시 모습

대구 보현의집 - 이주노동자 난타팀 '아리스리' 국악교실

대구 보현의집(대표 지도스님)은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4월 10일부터 매주 일요일 남구종합복지관 강당에서 국악교실을 열고 있다. 국악교실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함으로써 근로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자 국악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난타팀은 우리나라 고유 악기인 북을 배우며 현재 맹연습 중이다. 난타팀 이름이 아주 재밌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인 아리랑에서 '아리'를, 스리랑카에서 '스리'를 결합한 것으로 "아리스리"라고 한다. 아리스리 난타팀은 자선 공연



등의 기회가 생기면 무대에서도 관객과 만나길 바라고 있다.

스리랑카의 와산다씨는 "박자 맞추는 게 어렵지만 스리랑카 사람들도 북치는 걸 좋아해서 매우 재미있어요. 다음에는 스리랑카 북과 한국 북을 함께 연주해 보고 싶어요. 많이 연습해서 무대에 설 수 있으면 좋겠네요."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전국 어디 곳에서도라도 난타팀 '아리스리'의 공연이 이루어져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

대구 보현의 집 053-471-6640

6 월 행사

단체	날짜	행사
광주 해뜨는 다문화가족 복지센터	6월 11일	제2회 광주지역 다문화가정 큰잔치
꿈을 이루는 사람들	6월 18일	이주민 합동결혼식
마하 이주민지원단체 협의회	6월 19일	제1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배 이주민 배구 큰잔치
김포 마하 이주민지원센터	6월 26일	다문화 및 난민가정 "아름다운 동행" 발족식